

시스템 改善작업

한강大교·마포大교·서울大교·성산大교·천호大교·성수大교·원효大교·잠실大교·영동大교·올림픽大로·서울大공원 등 「大」字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서울大공원은 서울대학교 공원이 아니라 서울의 큰 공원이란 뜻일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협하지 않고, 단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나라도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大」자를 즐겨 사용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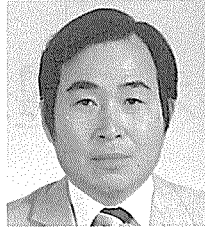
우리네의 생활권이 한마을에서 地球村으로 확대되는 등 넓어지고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의 손님들이 관광차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大」자가 들어간 이름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애를 먹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東西를 가로지르는 길에는 짝수자리로, 南北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홀수로 번호를 붙여 「6번 하이웨이」「5번 프리웨이」라는 식으로 부른다.

처음은 외국사람이라도 주유소에서 파는 지도 한장으로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시스템적이라고 한다.

도로망과 이용시설이 생활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이름을 상호

노중호
쌍용컴퓨터 전무이사



연계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붙인다면 시설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반감되는 것이다. 숲을 나무만 보지않고 보고 만든 도로망과 지명들을 그대로 컴퓨터에 담는다면 그것은 꼬인 실타래를 방직기계에 거는 꼴과 같아서 컴퓨터시스템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도로와 다리가 어디에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또 다른 도로와 다리가 생겨날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다음에 서로 관련된 이름을 짓고 표준화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작업을 위한 시스템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이 시스템설계작업이 컴퓨터화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컴퓨터를 이용한 사람들과 시스템전문가들이 그들 스스로가 추구하려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시스템의 모양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